정당한 사람으로서 일체를 다 쥐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 19면에서 계속

리가 죽으면 우리 이 몸뚱이 속의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죽으면 그, 영계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령들이 각 모습을 해 가지고, 크게 모습을 해 가지고 앞을 가리고 있어요. 날 두고 어딜 가느냐고.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도환생을 같이 하니까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쭉 모두 늘어져 있으니 발을 들여놓고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엔 강을 못 건넙니다. 오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의식들이 모두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것만 알거든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 못 한 사람에 한해서 얘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생사천으로 가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다시금 차원에 따라서 생산이 돼야, 이 세상에 큰 회사를 해서 많은 중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어버이가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뭐, 어느 게 될 수 있느냐. 선신이 되겠느냐 또는 선관 선녀가 되겠느냐. 이런 자기의 소원대로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강을 못 건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우리 몸이 공해서 내가 한 사이가 없이 지금 산다. 내가 보는 사이도 없고 듣는 사이도 없다. 길을 걸어갈 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 그와 같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든 게 그렇게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랬죠? 그랬는데 그걸 몰라서 살아생전에 강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만 알거든요,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그러니까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죠. 자기도 없는데, 체가 없는데 뭐 빠질 게 있다고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까, 글쎄.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강물에 빠져 죽는다는, 살아생전에 살던 착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내가 그대로 영령인데 어떻게 또 강이 있어서 강을 못 건너갑니까.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다 버려야 훨훨 그냥, 내가 없는데 강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셋째, 우리가 불이 있으면 타 죽는다는 인식을 합니다. 불이 활활 일어나는 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타 죽는다는 생각만 했지 자기 형체가 없다는 거는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불 문이 있는데 그 불 문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불 문을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타 죽을까 봐. 지금 살아생전에는 불구덩이가 있어서 내가 가면 불이 붙고 형체가 있으니까 타 죽지만 형체가 없는 마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물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땅속을 들어가든지 걸리는 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미리 살아생전에 그것들을 모두 아시고 있어야 죽어서도, 무의식중에도 '아, 내가 없지.' 그래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처에, 모든 도리천에 큰 일체제불의 마음, 그 자체의 보살들이 전부 등장을 하죠.

그래, 여러분을 그 마크 달린 걸 보고서 좍좍 전부 갈라서 판결을 보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보면, 지금으로 치면 살아생전에는 판사나 마찬가지죠. 산신, 독성, 이런 분들, 지금 독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분들이라든가 주산신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주해신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 판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살아생전에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정신을 차린다면 그런 거니 저런 거니 다 그냥 훌쩍훌쩍 넘어갈 수 있을 텐데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대를 받고 참 존중받게 되고, 이 세상에 다시 나게 되더라도 위대하게 태어나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한 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불순하게 사신다면 그거 누가 다 대치를 합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 뺏어가는 것도 없고.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꼭 대치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업이나 과보나 영계성이나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려면 그걸 만든 자체 내에서만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에서 꼭 컴퓨터 입력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보는 거, 이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심안으로 보는 거. 심안의 귀로 듣는 거. 신족통, 또 이거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거. 타심통, 또 남의 마음을 뚫어지게 아는 거. 또 숙명통, 어디서 내가 왔는지 그걸 아는 거.' 그 다섯 가지가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만이 바로 누진에서 자유롭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건데 자기 육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오계 속에도 결부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이것이 결부된 자체, 왜 오계라고 했을까 이런 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둥근 한 통 속에서 산다면 그것이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오계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책에도, 경전에도 써 있겠지만 지금의 현재에 알아들으시기 쉽게 그냥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분명코 우리가 입조심하고 항상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또 분수를 지켜서, 성나시더라도 분수를 지켜서 말씀하고 식구들을 괴롭히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거 탐하지 말고, 음욕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거를 탐하지 말라 이런 얘깁니다.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거를, 내 몸뚱이도, 가지고 살던 이 집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빈손 아닌 빈손으로 갑니다. 나올 때도 빈손 아닌 빈손으로 나왔고요.

이 모두가 사람 사는 도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이 정수에 입력이 잘돼서 죽는 날에 회향을 잘할 수 있을까 한 겁니다. 이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고 소화가 잘돼서 '아이, 참 잘 먹었다.' 하는 게 회향과 같은 겁니다. 그 음식을 먹고 체해 가지고 만약에 요동을 부린다면 그게 회향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화목하게 끝났으면 회향이 잘된 거고 화목지 못하게 끝났으면 바로 회향이 잘못된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일생 동안을 살아나온 그 회향인데 끝에 가서 '어이, 그 사람 그거 그러더니 잘 죽었어.' 이렇게 회향을 해야 됩니까? '아이, 그 사람, 아까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죽었어.' 이렇게 회향을, 끝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사처에 가더라도 '아, 당신은 참 위대해.' 하니까 차원 높게, 아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줘서 내보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반복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하고 삽니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의 정신세계를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신세계로 말미암아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즉 말하자면 댁의 육신과 정신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댁의 육신이 올바르게 살려면 정맥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어디에고 그저 살 만하면 파괴가, 이건 했다 하면 틀려 넘어가고 꼬여 넘어가고….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죠. 만약에 바퀴에 심봉이 딱 꿰져 있다면 그 심봉을 의지해서 바로 바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 심봉이 제대로 끼어 있지 않다면 바퀴가 이탈을 하게 되죠. 그거와 꼭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죽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진리며 이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지, 우리들의 법이 없고 부처님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남의 말만 기억하고 뭘 한다 하고 못 알아듣고 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말을 해서 그냥 귀신을 믿고 타의에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귀신을 믿는 거지, 내가 귀신이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믿습니까. 정당한 사람이라면 정당한 사람으로서 일체를 다 쥐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예가 있었죠. 오늘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스님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절에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쌀을 얻으러 왔다고 봅시다. 그 두 가마쯤 있는 거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 스님네들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어도 그냥 싹싹 긁어서 다 퍼 준 겁니다.

왜 그렇게 다 퍼 줬을까요?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에 당장 공양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 퍼 줍니까? 그릇을 비우면 반드시 또 그릇에 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샘물은 퍼내면 샘물이 또 솟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항아리에 그냥 물 모아 놨다가 그냥 퍼 쓰면 항아리가 비죠. 비면 없다고, 살 수가 없다고 야단법석들을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신계를 공부 안 해서. 샘물이라는 건 정신계에서만이, 참나의 뿌리에서만이 그 샘물이 나오는 거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 쌀도 없는데 다 줘 놓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아홉 시에 취침 종을 치니까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짐차 소리가 털렁털렁 털렁 나더니 쌀 세 가마를 갖다가 그냥 털썩 갖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지 마세요. 이 쌀뿐만 아니라 일체 살아가면서 내 그릇이 비고 내 마음이 비었다면 스스로서 거기 없으면 채워지고 없으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절이 한국에서도 부자 절이라고 항상 그럽니다. 그릇에 담아 놓지 않고 남한테 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봐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를 자랑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좀 한 찰나를 아시라고요. 이 정신계의 한 찰나라는 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중세계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그 때문입니다.

우리모두가 지금 죽고 살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진리이며
이 자체가 법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6월 23일 국외지원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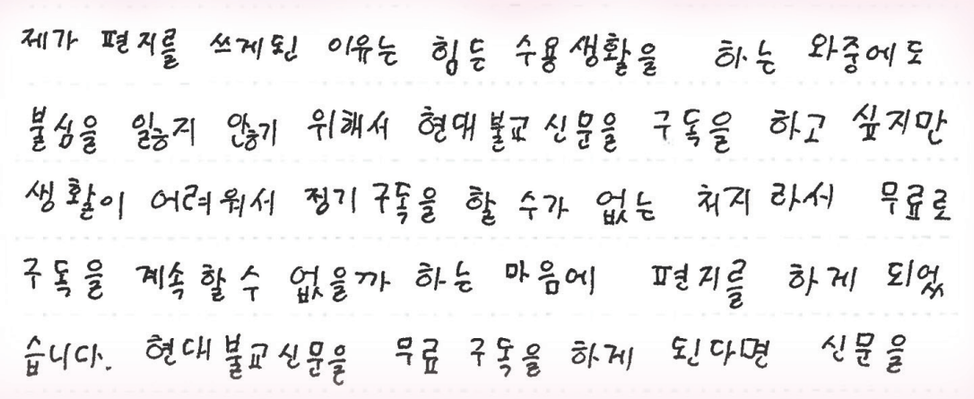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